

5. 복음이란 무엇인가?

<같이 읽을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1:14,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5-17)

‘복음’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에만 약 113회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많이 나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특히 신약성경은 복음을 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27권의 신약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들어 있는 성경을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네 권의 복음서를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서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

‘복음’이라는 말은 말뜻 그대로 하자면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좋은 소식 (good news)’ 혹은 ‘복음(gospe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복음이 ‘유양게리온(εὐαγγέλιον)’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이 ‘새로운 황제의 등극이나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를 빌려 쓰되, 그 속에서 새로운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시며, 그 분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1.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죄에 얽매어 있고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 ① 우리가 죄인이며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악과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불의, 증오, 개인적인 결핍이나 아픔,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국가적·국제적 차원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악과 고난에 둘러싸이고 짓눌려 있습니다. 이러한 악과 고난들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목이 따갑고, 콧물이 나며, 머리가 아픈 것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감기에 걸렸으며, 병균이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죄라는 ‘병균’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므로 온갖 형태의 악과 고난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악과 고난의 현상들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상들이요, 우리가 그런 악과 고난에 짓눌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죄의 힘 아래 놓여 있고 감기에 걸리듯 우리가 죄에 얽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김세운)

- ②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나는 누구인가?’에서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되새기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법을 어기거나 양심에 거스르는 잘못된 행동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남을 증오하고 악을 도모하는 등 생각으로 짓는 죄, 남에게 욕하여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하며 해를 끼치는 말로 짓는 죄,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등 행동으로 짓는 죄가 죄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죄의 형상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모든 행동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롬6:23)’이라고 말합니다.

2. ‘죄인’인 우리들은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 즉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 ① 죄로부터의 구원

골로새서 1:13,14

에베소서 1:7

갈라디아서 5:1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마귀, 죄)에게 종노릇하던 사람(갈4:8)’이었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②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

요한복음 17:2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유양겔리온’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새로운 황제의 등극이나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복음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세상의 수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왕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권력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보다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섬기시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스가랴 9:9,10

③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심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나요?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마가복음 1:15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빌립보서 3:20,21

장차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예비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 즉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3. 구원의 좋은 소식인 ‘복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24

②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8,9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좋은 소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니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다른 복음)은 없을까요?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사도행전 4:12

갈라디아서 1:6-8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즉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있다고 전하면 심지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5. 이렇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고린도전서 1:23,24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즉 걸림돌과 같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다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고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마태복음 13:44-46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이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의 가치와 진주의 가치를 몰

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그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기쁜 마음으로 밭을 사고, 진주를 샀던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육신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은 당장 나를 행복하고 즐겁게 해 주지만 복음은 지금 당장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 바울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무엇을 자랑하고 귀하게 여겼는지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빌립보서 3:5,6

8.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은 가문과 혈통 그리고 율법과 전통에 대한 지식과 열심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경험한 다음에는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무엇처럼 여겼다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7절을 읽고 찾아서 써 보십시오. _____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을 가장 고상하다(고귀하다)고 생각하게 됐나요?

빌립보서 3:7절을 읽고 찾아서 써 보십시오. _____

9.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며 가장 귀하게 여기던 가문이나 혈통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 하면서 탄식합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로마서 7:22-24

10. 이처럼 율법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 하면서 탄식하던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나요?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로마서 2:1,2

율법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던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며 자부심을 느끼던 가문이나 혈통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숨겨져 있던 보화를 찾은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자신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고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즉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보화는 일시적으로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필요하고 또 잠깐 우리를 만족시

켜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즉 복음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게 되니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보화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

은혜의 주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이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한 복된 소식인 이 복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